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15년 11월 19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장

담당: 홍보실 윤정욱 전문원

전화: 02-3701-7349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마이크 켈리 美 연방 하원의원 특별강연회 24일 개최 '한미관계, 성과와 전망'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오는 24일(화)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경희궁 1가길 소재 연구원에서 마이크 켈리(Mike Kelly) 美 연방 하원의원을 초청하여 아산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켈리 의원은 "The U.S.-Korea Alliance and the Three Pillars of Commitment"를 주제로 한미동맹과 원자력협정 협력 등에 대해 강연한다. 그는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하원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결의안 (H.Res.200) 을 공동 발의하는 한미관계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지한파이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제 3 선거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미-한의원 외교협의회 회장과 코리아코커스 (The 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공동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번 특별강연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연방의원초청사업(CMEP)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연방의원초청사업(CMEP : 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은 美 '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에 준거해 2011년 이래 시행하고 있는 미 의회인사 방한 초청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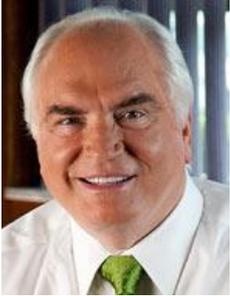
*취재를 희망하시는 언론인은 23일(월) 오후 12시까지 1)소속 2)성명 3)연락처 4)오찬 참석여부를 [홍보실\(communications@asaninst.org\)](mailto:communications@asaninst.org) 02-3701-73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마이크 켈리(Mike Kelly) 연방 하원의원 약력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 《선거연구 시리즈 1,2,3》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 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100대 싱크탱크 순위'에서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91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참고 자료

마이크 켈리(Mike Kelly) 연방 하원의원 약력



마이크 켈리(Mike Kelly)

<직위>

하원의원(3선/공화/펜실베니아),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2013-), 미-한의원외교협의회장

<학력>

Notre Dame 대학 사회학 학사

<경력>

1992-96 Butler 지역 교육위원회 위원

2006-09 Butler 시의원

2011-현재 연방 하원의원

<한국관련 활동 및 참고사항>

- 한미 FTA 적극 지지, 하원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결의안(H.Res.200) 공동 발의(2013.5월)
-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법안(H.R.2449) 공동발의(2013.7월)
- 고노담화 검증시도를 비판하는 주미 일본대사 앞 하원의원 연명서한 참여(2014.6월)
- 대통령 방미 환영·한미동맹 강화 성명 하원 의사록 게재(2015.10)
-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참여(co-sponsor)